

신론 권매미 사건의 파급적 영향

남조선에서 동족에 대한 《신제라적》 망발이 울려나오기도 며칠이 지났다.

과국적후파에 대한 상상이나 대응책도 없이 핵강국에 대해 선불질을 하겠다는 어리석은자의 만용은 북남관계를 수년간의 엄중한 계선으로 돌려세우기에 충분하다.

어떤 참혹한 재난을 초래하게 되었는지 생각할 줄 모른다면 허바닥을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했다.

공화국은 이미 남조선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다시말하여 남조선군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공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화국은 시종일관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

하기에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고 천명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군부를 비롯한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공화국을 대결상대, 전쟁상대인 《주적》으로 막연하고 동족을 반대하는 외세와의 《동맹강화》와 합동군사연습에 광란적으로 매달리며 누구도 원치 않는 전쟁 불구름을 몰아오려 하고 있다.

지금도 남조선내부에서는 국방부장관의 《신제라적》 망발을 비호두둔하고 외세와 작당하여 북침전쟁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의 심상치 않은 대결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제라적은 선제적위협이 상존할 때 취하는 조치》, 《안보위협

시 오차없이 립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것들이 주철대는 것이나 그 무슨 전문가생세를 피우는 자들이 복이 《도발에 나설 명분을 쟁는다.》는 아전인수격의 《판단》을 내놓고있는 것은 단적인 실례이다.

입은 생각을 묻어두는 덮개로 되어야지 허세나 떨기 위한 망발을 쏟아놓는 하수구로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공화국의 주적은 전쟁이지만 한사코 전쟁대결의 불질을 하는 자들까지 가만히 놔둘 수는 없다.

그렇게도 주적이 되고싶은가.

겁에 질린 피해망상이든 어리석은 오만이든 동족에 대한 그 어떤 망발이나 모략책동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그 결과는 결코 남조선호전세력이 망상하던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핵강국에 대해 선제적공격을 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호랑이한테 덤벼드는 하루강아지의 격에 불과하다.

알만큼 말해주었음에도 리해를 못하는 것은 천치들에게서나 나라는 중상이다.

그런 바보들때문에 북남관계가 극도로 악화일로에 치달고 남조선인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갈수록 커만 가는 것이다.

충고하건대 물인지 불인지 가리지 못하고 마구 날뛰다가 제스스로 재난을 들뜨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 필

자멸을 재촉하는 전쟁대결망동

미국노들이 외세와 배꼽 맞추는 곳에서는 언제나 민족반역의 음모가 꾸며지기 마련이다.

얼마전 남조선군부가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된 남조선미국일본합동참모본부 의장회의라는데서 외세와 작당하여 새로운 북침작전계획작성을 위한 《전략기획회의》에 정식 서명할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앞으로 1~2년내에 새 《작전계획》이 작성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예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새 《작전계획》에는 공화국의 고도화된 각종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화된 전쟁대결을 대대적으로 벌릴 정책을 꾸미고있다는 실증이다.

이미전부터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외세와 작당하여 수 많은 북침전쟁각본들을 짜놓고 어리석은 망상을 이루어

보고 발버둥쳐왔다는 것은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조선반도에서의 전면전과 허황한 《금변사태》, 《국지도발》, 《신제라적》을 가상하여 작성한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작전계획 5015》 등 북침전쟁각본들과 그에 따라 남조선에서 해마다 미국과 연합하여 벌리는 각종 명칭의 북침전쟁연습들이 그러한 례들이다.

최근 군부호전세력속에서



러져나온 《신제라적》 망발과 함께 벌어지는 새 《작전계획》 수립책동은 그들이 북침전쟁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현을 위해 얼마나 분별없이 헤딩비고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준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육군미사일사령부, 《육군미사일전력사령부》로, 공군작전사령부상하방공유도탄사령부,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로 확대개편하는 늑골을 벌린지도 이러한 홍심의 발로이다.

더더욱 가증되는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며 북침전쟁을 노린 위험천만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의 전쟁대결책동으로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긴장도 전쟁위험은 시시각각으로 커지고있다.

한갓 미국의 전쟁하수인들에 불과한 것들이 자신을 과신하며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공화국을 감히 어찌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남조선호전세력은 자멸을 앞당기는 무분별한 북침전쟁책동에 광란적으로 매달리기 전에 그것이 몰아올 감당할수 없는 과국적후파에 대해 심고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후회는 언제나 늦는 법이다.

최정선

한 인간에 대해 알려거든 그의 주위사람들을 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하는가를 통해 그 사람의 수양과 인격, 품성 등 인간됨을 알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남조선의 윤석열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은 그의 측근들을 보 고도 잘 알수 있다.

현재 윤석열주위에는 그의 당선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1등공신》들이 20여 명 있다고 한다.

그들중의 대부분이 이전 보수 《정권》들에서 《보수개혁》, 《합리적보수》를 운운하며 친리명박과, 친박근혜와 계파싸움을 벌리던 자들이다.

그런가 하면 이전에 친리명박과 친박근혜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서로 앙숙이었던 홍준표와 류승민에게 붙어다니다가 지금의 윤석열에

오물통에는 쉬파리들이 날아들기 마련이다

게로 발길을 돌린 인물들도 더러 있다.

한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여러 군소정당들로 전향한 인물들 일명 《월세정치인》들로 지칭되는 사람들도 몇몇 잘된다.

윤석열이 만든 그 무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것도 지난 시기 동족대결, 친미사대를 선행하던자들, 남조선인민들이 바라던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사사건건 제동을 걸던 자들을 비롯해서 시대와 민심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는 짓거리들만 하던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실이 윤석열당선의 《1등공신》이라는자들, 그

를 뒤받침한다는 것들은 하나와 같이 권력싸움에 이골이 난자들, 자기의 정치적 야욕과 치부를 위해서는 정치적소신도 서슴없이 쫓아내는 시정배들, 동족대결과 친미친일사대의식이 골수에 박힌 자들이다.

바보들 자기보다 더한 바보들 만나면 좋아한다더니 어중이떠중이들이 뒤받침하는 윤석열자세가 권력야망과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신의도 헌신적처럼 저버리는 정치간사배, 동족을 《주적》으로 보는 대결광, 외세를 하나비모시듯 하는 매국역적, 제분수도 모르고 설치는 불능아가 아니냐.

남조선인민들이 《《국민의

힘》의 우산밑에 숨어든 배신자》, 《인간의 품격을 저버린 추물》이라고 지탄하고있는 것처럼.

오물통에는 쉬파리들이 날아들기 마련인 것처럼 이런 간사배들의 주위에 온갖 추물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이 지금 《정권교체》의 현훈중에 들떠있지만 그 역겨운 상투의 추한 웃음이 과연 얼마나 오래가겠는지?

제 머리로 사고할 줄 모르고 제 손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지무능한 박근혜를 권력의 자리에 올려놓고두고 뒤편에 버려두고 역도년의 특대형정치추문사

시민들의 차거운 눈길

남조선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사부실 을 통산으로 옮기는데 대해 시민들의 눈길은 차겁기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옛날의 파천(임금이 재난을 피해 궁을 떠나는 것)에 비유하며 비난하고 있다.

어쩔수 없는 물리력에 의해서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전란때문에 옮겨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미신때문에 옮겨려 한다는 설도 나도는

《검찰공화국》을 노래하고 《은덕》을 《천양》할 흥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남조선민심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대통령》 사부실이행은 월세방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하숙집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유분수치 베풀어 아무순 경우 없는 짓이고 분수 모르는 도깨비장난이란 말인가라고 개탄하고있는 민심의 소리를 전하였다.

본사기자

적폐부활이 몰아온 정치적 혼란

남조선에서 4월입시 《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계발사업특혜의혹 등 윤석열과 그 일가족속들의 부정부패혐의에 대한 특검법안을 련이어 발의하고 윤석열과 《국회의》 패거리들에게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특검에 대해 약속한만큼 선거가 끝났다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과 《국민의힘》 것들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폐지, 검찰에 예산편

성권부여 등을 사법공약으로 내 놓고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진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이것은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포기하고 새 《정부》에 백기투항하라는 강박이며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서슬루른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로골적인 기도라고 비난하면서 《오만한 집권군의 행세를 멈추라》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이 총장시절 함께 검찰개혁을 막아나섰던 검사들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끌어들이고 다음기 《정부》의 요직들을 검찰주의자들로 채우고있다고 공

다고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반윤석열, 반보수공세에 대해 《국민의힘》 패거리들은 《대선복복》, 《막무가내식생태》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초불민심이 거래의석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더불어민주당의 손에 쥐어주었지만 적폐청산은 고사하고 썩은 무우조차 베여보지 못한채 맥없이 주저앉아버린으로써 적폐의 부활을 자초했다.》, 《민심을 거역하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수 없다는 철리를 20대(대선)은 랑혹하게 보여주

정권교체만이 평화와 개혁의 첫걸음

남조선잡지 《주간경향》이 장애인들의 불행한 처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엄마는 세상쯤 소아마비를 앓은 뒤 장애를 가졌다. 조금이라도 걸으려 했지만 수시로 넘어졌다.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제약을 (어쩔수 없는 건가 보다.)로 여겼다.

딸은 비장애인이었다. 그는 장애인운 동활동가다. 본래 그의 꿈은 (부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다. 가난에서 벗어나 엄마를 호강시키고 싶었다.

그가 어릴 때 주변에선 그를 (소녀가장)이라고 불렀다. 강제로 주입된 (가장)이라는 정체성때문에 그는 (개천의 봉이 떼 집안을 살려야 한다.)는 강박을 가졌다.

딸은 엄마가 삭발한 순간을 잊을수 없다. 엄마는 할머니처럼 가난때문에 치료도 못받고 죽는이들을 살려야 한다며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제폐지를 웨쳤다. 주변사람들이 삭발을 말렸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다. 엄마는 삭발증 눈물을 흘렸다.

2012년 파주에서 장애를 가진 남매가 화재로 사망했다. 엄마는 장애인담배추모제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은 12층이다. 매일 밤 생각한다. 불이 나면 아이들에게 엄마를 두고 먼저 대피하라고 해야겠다. 나는 운이 좋다면 구조될 것이다. 아이들이라도 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하



일본의 역사외곡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죄를 짓고도 아닌보살하며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오그랑수를 쓰는 속속들이 있다.

바로 일본이다.

얼마전 일본정부는 다음해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상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한 검정결과를 발표하였다.

교과서들에는 《일본군성노예제도》, 조선인노동자들을 《강제연행》했다는 표현이 삭제되었으며 조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도 저들의 《고유령토》라고 서술되어있다고 한다.

진실이 짓밟히고 날조와 외곡으로 얼룩진 교과서가 뼈저리게 통과되고있는 일본의 현실은 도덕적저열성과 파렴

한 태도문제이다.

일본이 역사교과서들에서 한사코 없애버리려고 하는 일대 반군성노예범죄제만 놓고봐도 그렇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특대형반인륜적범죄로서 그 류를 찾아볼수 없는 만고죄악

제국주의침략력사의 그 어디를 더듬어보아도 일본과 같이 다른 나라 녀성들을 자기 나라 침략군부리들의 동물적욕망과 침략열기를 북돋아주는 성노예로 만든 범죄 국가가 없다.

하지만 인간의 말을 쓴 때

역사외곡은 자멸의 길이다

이다.

과거 일본은 군대의 전쟁의욕과 전투능력을 지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변태적인 군사력에 기초하여 녀성들을 탄약과 같은 전쟁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일본군성노예제도를 내었다.

일본의 역사외곡책동은 전면외곡, 전면삭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이 역사외곡에 이처럼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은 저들의 치명력은 죄악을 영원히 덮어버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군국주의사상과 페망

에 대한 복수심을 주입시킴으로써 그들을 군국주의부활과 해외침략의 길로 떠밀려는데 있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외곡할수도 지워버릴수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세기 침략전쟁에 내몰렸던 전 일본군병사가 한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되어서 주입받고 신화를 사실로 믿고 전쟁에 내몰린 군인이었다. 아시아인민들에게 커다란 참해를 입혔던, 그래서 파멸했던 우리들이다. 외국련 교과서가 교육현장에 들어가는 절대로 안된다.》

일본은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본사기자 한일역